

#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Popul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박세훈**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제1저자)  
**Park Sehoon** Associate Research Fellow, Green Territory &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Primary Author)  
(shpark@krihs.re.kr)

**정소양** 국토연구원 녹색국토·도시연구본부 연구원  
**Jung Soyang** Researcher, Green Territory & Urban Research  
Division,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jungsy@krihs.re.kr)

## 목 차

### I.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II.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 관련이론 검토
2. 선행연구 검토

### III. 외국인 증가추이와 특징

1. 외국인의 유형구분과 추이
2. 외국인의 국적별 추이

### IV. 외국인의 유형별·국적별 공간분포

1. 외국인의 유형별 분포
2.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 V. 결론 및 정책함의

※ 본 논문은 2009년 국토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사회에 대응하는 도시정책 연구(1): 외국인 밀집 지역의 형성과 정책과제”를 보완·재정리하였음.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국내 90일 이상 체류자격을 가진 등록외국인은 급격히 증가하여, 2008년 말 그 수가 85만여 명에 이르렀다. 단기체류자를 포함한 체류외국인은 2007년 100만 명을 넘어섰으며, 2008년 말 현재 116만 명에 이른다. 통계청의 예측으로는 2020년 한국의 외국인 인구는 254만 명(총인구 대비 5%), 2050년 409만 명(9.2%)으로 증가하여 현재 영국(10.1%, 2006년)과 같은 수준의 복합민족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이민을 제도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결혼 등을 통해 한국국적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임시체류 자격만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전체 외국인의 61%를 차지하는 노동자의 경우 대개 3년 이내에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순환체제(rotation system)’를 유지하고 있다.<sup>1)</sup>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아직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주현상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의 공간분포에 대해서도 종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관련제도의 변화 및 이에 따른 외국인의 증가현상을 살펴보면, 사실상 외국인의 정주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는 국가 간 MOU 체결을 통하여 엄격하게 그 수가 관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의 증가 등으로 정주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서는 ‘방문취업제’를 도입하여 보다 장기간 자유

롭게 체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또한 결혼이주자의 증가 역시 영구히 한국사회에 정착하는 외국인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정주 외국인의 증가는 이제 장기적인 추세이자 구조적 현상임이 분명해지고 있다. 한국경제의 고도화가 진행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외국인의 존재가 한국사회에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된 것이다. 결국 한국사회도 이제 외국인이 임시거주자가 아닌 ‘주민’으로서 함께 생활하는 다문화사회의 길목에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외국인의 유입과 그에 따른 문화의 다양성은 경제활성화를 위한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여겨지기도 하며 동시에 커다란 사회갈등의 요소로 대두되기도 한다. 런던, 뉴욕, 홍콩과 같은 세계적인 대도시들이 오늘날과 같이 변영하게 된 데에는 다문화가 가져오는 창의성과 개방성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지적이 있다(Elliott, M, 2008; Lin, 2005). 한편 2005년 프랑스의 인종소요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외국인의 존재는 사회적 골칫거리가 되기도 한다(전병근, 2005; 이갑호, 2007). 따라서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의 문턱에 들어선 지금 시점에서 현재 외국인의 공간분포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추세와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진지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체류자격별로, 국적별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체류 외국인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자료이며, 관련 정책의 수립에 있어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그러나 그동안 관련 통계자료의 미비로 인해 외국인의 공간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없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1) 최근 숙련노동자에 한하여 체류기간을 2년 연장하는 제도가 생겼으며,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도(방문취업제)를 통해 최장 8년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역시 임시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것일 뿐 영주자격을 부여하는 것과는 거리가 있음.

연구의 간극을 메우고, 외국인 공간분포의 구조적 특징과 전개양상이 우리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한다. 외국인의 공간분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국적별 공간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연보를 근거로 하였다. 국내 외국인 관련 통계자료는 법무부의 자료 이외에도 시군구 주민등록 인구통계와 인구총조사의 외국인 인구자료가 있다. 이들 자료는 소재지의 거주 외국인을 조사한 자료이기 때문에 공간분포자료로서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류자격별·국적별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아 관련된 분석을 수행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비해 법무부 자료는 체류자격별·국적별 원시데이터를 포함하고 있어 자료의 가공·분석에 있어 유리하다.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려는 외국인(등록외국인)은 관할 출입국관리 사무소에 외국인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무부 자료는 이때 신고된 거주지를 기초로 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08년 말 기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외국인의 유형은 법무부의 체류 자격을 기준으로 노동자, 결혼이민자, 전문인력, 유학생, 기타로 구분하였다.<sup>2)</sup> 이러한 분류방식은 기존 연구와 정부의 외국인정책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방식이나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 분석을 위해 주요

연도별로 유형분류를 새롭게 하였다(〈부록〉 참조). 국적의 경우, 2008년 현재 거주인구수가 많은 5개국 -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타이인, 미국인 - 별로 공간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한편,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중국 국적에 해당하나 외국인 중 점유하는 비중이 크고 기타 중국인과 체류유형과 공간분포가 상이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타 중국인과 구분하여 별도로 다루었다. 법무부의 통계연보에서도 1991년부터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 별도로 집계하고 있다.

외국인의 유형별·국적별 분석결과는 GIS를 활용하여 도면화함으로써 시각적으로 분포패턴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형별 분포와 국적별 분포를 교차시킴으로써 어느 국적에서 어떠한 유형의 외국인이 중심이 되는지를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외국인 정주패턴의 중장기적 추세를 예측하고 그 정책함의를 도출하였다.

## II.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 1. 관련이론 검토

본 연구의 핵심적인 질문은 외국인의 공간분포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국토공간구조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이 왜 특정공간에 집적하게 되며 그것이 오늘날 국토·도시공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제이주(international migration)를 설명하는 이론은 매우 다양하지만,<sup>3)</sup> 이주민의 집적지 형

2) 비자타입으로 구분하면, 노동자는 단순기능인력으로 크게 고용허가제에 따른 비전문취업(비자타입 E-9)과 방문취업제도(H-2)에 따른 노동자 그룹으로 나뉜다. 결혼이민자는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F-1-3, F-2-1)을 가진 자들을 의미함. 전문인력은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홍행, 특정활동 등을 의미함. 그리고 유학생 유형은 학업 및 연구를 목적으로 유학생(D-2) 혹은 연수생(D-4)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들과, 한국의 고유문화, 예술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나 지도를 받으려는 자 등 학술적인 예술활동을 하는 자(D-1)들을 포함함.

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자본이론(social capital theory)으로 설명되고 있다. 전통적인 이주이론들이 사람들이 왜 움직이는지, 왜 특정 국가를 향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면 사회자본이론은 어떻게 이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수용국에 정착하게 되는지, 즉 공동체와 정착지의 형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다(Granovetter, 1995; Massey et al. 1993; Portes, 1995).

사회자본은 ‘특정 목적을 가진 행위를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사회구조 속에 자리매겨진 자원’으로 정의된다. 한 사람이 소유한 사회적 자본의 양은 그가 효과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연결망의 크기’와 그 연결망에 접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경제적·문화적·상징적 자본의 양에 의해 결정된다. 이주민이 특정 공간에 집적하게 되는 것은 그 공간이 이주민이 요구하는 이러한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주민 공동체 내에는 상호 호혜성, 연대성, 동족에 대한 배려, 정보의 네트워크 등 이주민들이 낯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자원들이 존재하는데 이 모두가 사회자본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

이 사회자본은 우선 입지특수적(location-specific) 특성을 지닌다. 즉 특정지역에서 발견할 수 있는 사회자본을 다른 지역에서는 발견하기 쉽지 않다. 또한 한 지역의 사회자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도 매우 어렵다. 사회자본의 이러한 특성은 왜 사람들이 특정 국가로, 그리고 특정 지역으로 이주하는지를 설명해 준다. 상대적으로 이주민을 위한 사회자본이 잘 갖추어져 있는 지역에 사람들은 이주하여 정착하게 되는 것이다 (Faist, 2000).

한편 이주민의 증가와 이들의 공간적 분화는 경

제의 세계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세계도시론(global city theory)과 글로벌 도시지역 이론(global city-region theory)은 세계화된 경제체제 속에서 이주민의 공간적 분화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시한다. 사센(Sassen)은 ‘세계도시(global city)’의 금융, 생산, 분배조직이 어떻게 저임금·저숙련의 서비스직 종사자를 끌어들이는지 적절히 묘사하였다(Sassen, 2006). 제조업이 빠져나가고, 금융·보험 등의 생산자 서비스로 특화된 도시는 그 경제적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고급 두뇌를 필요로 하지만 동시에 저차 서비스업 - 건설, 건물청소, 택배 등 - 에 종사하는 인력 역시 필요로 한다. 이때 주로 저임금의 소수민족 이주민들이 이러한 저차 서비스업을 담당하면서 사회적·민족적 양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된다(Zukin, 1988). 이러한 계층·민족의 공간적 분리는 도시사회에 매우 도전적인 요소이기도 한다. 계층적 분리와 민족별 분리가 서로를 강화시키면서 사회문제로 불거지기 쉽다. 빈곤지역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적절한 교육을 받지 못하면서 상향적 사회이동을 하지 못하고 결국 소수민족 밀집지역에서 에스닉 경제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하게 된다. 즉 경제적인 빈곤상황이 공간적 분리를 강화시키고 공간적 분리가 사회적 낙인이 되면서 다시 계층적 분리를 강화시키게 된다.

이상에서 언급한 사회자본이론과 세계도시론/글로벌 도시지역이론은 각각 이주민 공간형성의 미시적 측면과 거시적 측면을 보여준다. 미시적으로 볼 때 이주민들은 자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자본이 형성되어 있는 곳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거시적인 공간패턴은 세계도시론이 가정하듯 도시공간상에 계층별·민족별 분화형태

3) 이주에 관련된 최신의 다양한 쟁점과 논의들에 대해서는 Keeley(2009)와 Castles and Miller(2009)를 참조할 수 있음.

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은 주로 거시적 측면에서 공간분포 현황만을 다루기 때문에 한국적 현실에서 이러한 이론을 검증하거나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 틀에 기대어 주어진 현상을 설명하고 나아가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 2. 선행연구 검토

최근 다문화사회에 대한 정책연구는 국책연구원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김이선 외, 2007; 장미혜 외, 2008; 최종렬 외, 2008; 김혜순 외, 2007; 오경석, 2007). 이 연구들은 최근 한국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문화현상을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다문화와 관련된 국가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공간분포를 직접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다룬 연구로는 강경조(2002)와 김은미(2007)를 들 수 있다. 강경조의 연구는 통계청 통계연보와 서울시 주민등록자료를 기초로 하여 서울시의 외국인 공간분포를 분석하였다. 그러나 강경조의 연구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외국인의 유형별·국적별 교차분석을 시도하지 못했다. 게다가 2000년 이후의 상황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외국인 인구가 급증한 것을 고려하면 오늘날 정책적 시사점은 매우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김은미의 연구는 서울시의 외국인 마을 현황과 그 배경을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는 그동안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외국인 집적지역에 대한 최초의 연구라는 미덕이 있지만 아쉽게도 정책의 기초자료로 참고할 수 있는 통계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유형별로는 상당한 연구가 축적

되어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연구(설동훈, 1999; 이정환·이성용, 2007; 정연주, 2001),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연구(안영진·최병두, 2008),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연구(김혜순, 2008; 황정미, 2009)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들 연구 역시 공간분포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으며, 다룬다고 하더라도 종합적인 관점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 시사점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외국인의 공간분포와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외국인정책에 있어 기초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가 미비한 데에는 우선 외국인에 대한 기초통계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데 1차적인 원인이 있다. 그동안 등록외국인에 대한 통계는 주로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근거한 것이었다. 그러나 주민등록 인구통계는 국적별·체류자격별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아 자료를 분석·가공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등록외국인에 대한 시·군·구별 원시자료는 2008년이 돼서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통해서 제공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연구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이 있지만, 관련 연구가 부족한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최근까지 외국인을 단기체류자로 보는 사회적 시각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외국인 인구는 정주민구가 아니며, 따라서 외국인의 공간분포를 파악하고 특성을 규명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이다.

## III. 외국인 증가추이와 특징

### 1. 외국인의 유형구분과 추이

한국에서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이후의 일이다. 1980년대까지도 상당수의 외국인들이 거주하였지만 이들은 대체로 주한미군 혹은 해외기업 및 정부의 한국주재원과

표 1\_ 유형별 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명, %)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합계	비중	합계	비중	합계	비중	합계	비중	합계	비중
노동자	2,784 <sup>1)</sup>	5.6	42,721	38.8	107,039	50.9	278,587	57.4	519,746	60.9
결혼이민자 <sup>2)</sup>	-	-	-	-	-	-	75,011	15.5	122,552	14.4
전문인력	4,954	10.0	12,726	11.6	24,015	11.4	34,131	7.0	48,084	5.6
유학생	803	1.6	2,754	2.5	5,657	2.7	26,811	5.5	74,328	8.7
기타	40,966	82.7	51,827	47.1	73,538	35.0	70,604	14.6	89,297	10.5
합계	49,507	100.0	110,028	100.0	210,249	100.0	485,144	100.0	854,007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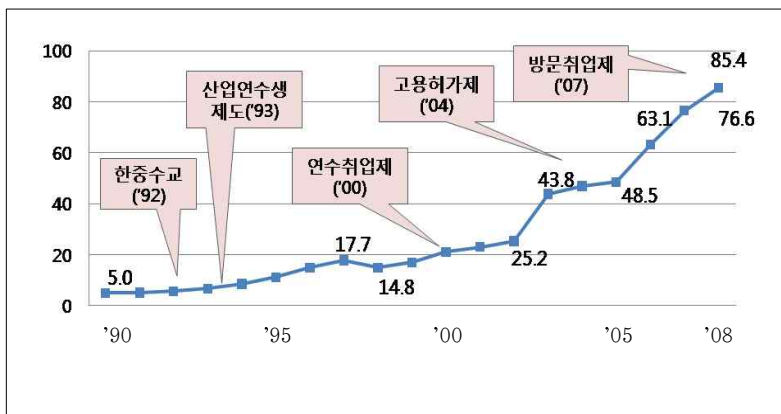
주: 1) 1990년은 산업연수와 일반연수가 세분화되지 않아 모두 노동자유형으로 집계.  
 2) 2001년부터 체류자격 F-1-3, 2002년부터 F-2-1을 별도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집계.

그 가족이 대다수를 점유했다. 이들은 일정 기간 한국에 체류하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임시체류자였으며 한국사회와의 접촉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유형의 외국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이 그들이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는 현재 51만 9,746명에 이르러 외국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61%). 외국인 노동자는 1993년 11월 국내 근로자들의 높은 임금으로 인해 가중된 생산직 인력난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한국사회에 등장하였다. 이후 정부의 외국인력정책은 연수취업제,

그림 1\_ 국내 등록외국인 변화추이

(단위: 만 명)



취업관리제를 거치면서 2004년 고용허가제<sup>4)</sup>로 일원화되었다. 한편 2007년 한국계 중국인에 대해 방문취업제<sup>5)</sup>가 도입되면서 이들의 입국 숫자가 늘어났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노동자와 방문취업제(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로 양분된다. 고용허가제를 통하여 입국한

4) 고용허가제는 국내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고용조건에 있어 국내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보장해 주는 제도임. 정부는 인력도입계약을 맺은 15개국 인력을 노동법상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보장하고 국내 기업에 취업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들은 1년마다 사업주와 계약을 갱신하며 체류기간은 원칙적으로 최대 3년임.  
 5) 방문취업제는 한국계 중국인 및 구러시아계인 등 동포인력을 우선 활용하지는 취지에서 2007년 3월에 도입되었으며, 이를 통해 들어온 노동자는 제조업, 건설업 등 36개 업종(단순노무)에 종사할 수 있음. 방문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3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3년 만기 후에는 출국하였다가 다시 5년 복수방문취업비자를 받아 재입국할 수 있음.

노동자들은 국가 간 MOU를 체결한 15개 국적인<sup>6)</su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문취업제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들은 한국계 중국인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다.

결혼이민자는 전적으로 새롭다고 할 수는 없지만 1990년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내적인 구성도 변화하고 있는 유형이다. 2001년 결혼이민자의 수는 2만 5천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2008년에는 12만 2천여 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법무부 통계에는 외국인의 수만 포함하고 있지만, 한국으로 귀화한 사람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결혼이민자 중 88%는 외국인 여성으로, 즉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남성 사이의 결혼이다. 결혼이민은 1980년대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한 일본여성들의 입국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과 베트남 등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갖는 사회적 중요성은 이들이 가족구성의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2008년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5만 8천여 명으로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다.

유학생 역시 1990년 이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에는 무시할 수 없는 수에 이르고 있다. 1990년 803명에 불과하던 유학생이 2008년 7만 4,328명에 달했다. 외국인 유학생의 급증을 가져오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 우선 한국의 사회경제적 발전과 국내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확대 등 활발한 해외진출에 따른 한국 기업의 취업기회 확보를 위한 어학교육 및 관련 학문분야 연구를 들 수 있다. 또한 최근 동남아시아에서 일고 있는 한류열풍에 따른 한국에 대한 관심 증대도 중요한 요인 가운데 하나다. 이러한 사회문화적 요인이 정부의 외국인

유학생 유치정책과 대학(특히 지방대학)의 학생확보 노력과 맞물리면서 외국인 유학생의 수가 급증한 것으로 판단된다(안영진·최병두, 2008; 487).

마지막으로 전문인력이다. 본 연구에서 전문인력은 비즈니스 관련 인력, 교수·회화지도자 등 교육관련 인력 그리고 문화예술 관련인력을 의미한다. 전문인력은 2008년 4만 8,084명으로 다른 유형과 같이 두드러진 증가세를 보이지는 않지만, 이들 역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한국의 외국인은 199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구성도 다양해졌다. 1970, 1980년대 한국경제의 고도성장,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국내임금의 급격한 상승, 그리고 1990년대 이후의 점증하는 세계화 현상이 함께 맞물린 결과다. 한국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는 외국인의 정주화를 야기하고 있다. 어느 사회든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외국인의 정주화를 불러왔다(Castles and Miller, 2009). 결혼이주민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순혈주의 전통에 도전하고 있으며 유학생과 전문인력을 통한 국제교류의 증가는 외국인과의 혼주(混住)와 접촉을 일상적인 것으로 만들고 있다. 즉 한국은 오늘날 외국인을 사회구성의 필수불가결한 요소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 2. 외국인의 국적별 추이

이제 외국인의 국적별 추이를 살펴보자. 1990년 초반까지 한국의 외국인은 대만국적의 화교(華僑)들과 미국과 일본의 현지 주재원이 대부분이었다. 그

6) 현재 송출국가로 MOU를 체결한 15개 국가는 필리핀, 타이,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동티모르, 키르기스, 네팔, 미얀마 등임.

표 2\_ 국적별 외국인 인구 추이

(단위: 명)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8년	
	총계	비중	총계	비중	총계	비중	총계	비중	총계	비중
한국계 중국인 <sup>1)</sup>	0	0.0	7,367	6.7	32,443	15.4	146,338	30.2	362,920	42.5
중국 <sup>2)</sup>	147	0.3	11,815	10.7	26,541	12.6	70,654	14.6	121,754	14.3
베트남	1	0.0	5,663	5.1	15,624	7.4	35,514	7.3	79,848	9.3
필리핀	578	1.2	9,004	8.2	15,961	7.6	30,649	6.3	39,372	4.6
타이	52	0.1	478	0.4	3,240	1.5	21,398	4.4	30,051	3.5
미국	14,019	28.3	22,214	20.2	22,778	10.8	23,476	4.8	28,853	3.4
인도네시아	78	0.2	3,434	3.1	16,700	7.9	22,572	4.7	27,394	3.2
대만	23,583	47.6	23,265	21.1	23,026	11.0	22,178	4.6	21,789	2.6
기타	11,049	22.3	26,788	24.3	53,936	25.7	112,365	23.2	142,026	16.6
총계	49,507	100.0	110,028	100.0	210,249	100.0	485,144	100.0	854,007	100.0

주: 1) 1991년부터 별도로 한국계 중국인에 대한 집계를 시작함.

2) 한국계 중국인은 제외한 수치임.

러나 199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결혼이주여성이 늘어나면서 중국과 동남아시아인의 수가 증가했다.

1990년 외국인의 국적별 비중을 보면, 대만국적이 2.3만 명으로 전체 외국인의 47.6%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그 뒤를 미국인(1.4만 명, 28.3%), 일본인(0.5만 명, 11%)이 따랐다. 대만, 미국, 일본 국적이 전체의 87%를 차지하였으며, 중국은 0.3%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 한중수교와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라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온 외국인수가 급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계속되어 2008년 현재 중국 48.5만 명, 베트남 7.9만 명, 필리핀 3.9만 명, 타이 3.5만 명, 미국 2.9만 명순으로 나타난다. 중국국적은 전체 체재외국인의 56.8%이라는 압도적인 비율을 나타내며, 특히 중국 국적 중 200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계 중국인의 입국이 크게 늘어나 현재 전체 외

국인의 4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2〉 참조).

외국인의 국적과 유형을 비교해 보면 체재 외국인의 구조적 특성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다. 〈표 3〉은 2008년을 기준으로 국적별로 외국인의 유형분포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노동자의 비중이 83.6%로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방문취업제(H-2 비자)를 통하여 입국한 노동자의 수가 많은 비중을 차지함을 의미한다.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은 44.6%가 유학생으로 유학생의 비중이 매우 높다. 이는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80%에 해당하는 규모다. 그리고 다음으로 결혼이민자, 노동자 유형순으로 나타나 노동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특징이다. 베트남은 노동자의 비중이 60.6%로 가장 높지만 다른 국적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 비중(33.9%)이 매우

표 3\_ 외국인의 국적별 유형별 비중(2008)

국적명	노동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전문인력		기타		총계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계	비중
한국계 중국인	303,470	83.6	35,707	9.8	3,792	1.0	1,176	0.3	18,775	5.2	362,920	100.0
중국 <sup>주)</sup>	22,149	18.2	32,080	26.3	54,265	44.6	5,558	4.6	7,702	6.3	121,754	100.0
베트남	48,423	60.6	27,092	33.9	2,840	3.6	331	0.4	1,162	1.5	79,848	100.0
필리핀	27,492	69.8	5,819	14.8	357	0.9	3,802	9.7	1,902	4.8	39,372	100.0
타이	27,014	89.9	2,041	6.8	226	0.8	268	0.9	502	1.7	30,051	100.0
미국	0	0.0	1,558	5.4	1,075	3.7	11,555	40.0	14,665	50.8	28,853	100.0
인도네시아	26,127	95.4	413	1.5	353	1.3	168	0.6	333	1.2	27,394	100.0
대만	0	0.0	341	1.6	322	1.5	130	0.6	20,996	96.4	21,789	100.0
몽골	13,653	64.4	2,325	11.0	3,004	14.2	533	2.5	1,686	8.0	21,201	100.0
일본	334	1.8	5,223	28.6	1,777	9.7	3,421	18.7	7,496	41.1	18,251	100.0

주: 한국계 중국인은 제외한 수치임.

높다. 결혼이민자는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한국계 중국인 포함)이 전체 결혼이민자의 55%를 점유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최근 베트남 국적인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필리핀과 타이인, 그리고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노동자의 비중이 각각 70%, 90%, 95%에 육박하고 있어 대체로 노동자 중심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전문인력의 비중이 40%, 기타가 50%로 비중이 높게 나타나 전문직종 종사자와 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미국 국적인의 체류유형이 동남아시아 국적인들과 매우 상이함을 의미한다.

외국인의 국적별·유형별 체류현황을 종합해 보면, 한국계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타이인, 인도네시아인의 경우 대체로 노동자의 유형이 많고,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은 유학생 비중이 크고, 미국인은 전문인력의 비중이 크다. 한편 베트남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이민자의 비중이 타 국적인보다 크게 나타났다.

#### IV. 외국인의 유형별·국적별 공간분포

##### 1. 외국인의 유형별 분포

이제 각 유형별 공간분포 현황과 주요 특징을 살펴보자. <그림 2>는 2008년도의 각 유형별 전국 공간분포 현황을 보여준다.

노동자 유형은 대체로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벨트를 따라 분포한다. 특히 서울 남서부(구로, 영등포)와 경기의 남서부(안산, 화성), 동남권의 김해, 양산, 울산, 전남 영암 등 주로 산업단지가 입지한 지역의 노동자 비중이 높다. 이 중 서울의 남서부지역에는 주로 H-2 비자를 통해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이 집중 분포한다. 그리고 수도권 외곽의 산업단지 와 동남권의 산업단지에는 고용허가제(E-9 비자)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 절에서 논의되는 국적별 분포와 교차시켜 볼 때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가 만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총 8개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

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경기 시흥시·안산시 단원구·화성시, 경남 김해시다. 국적별로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전체 노동자의 58%를 차지하며, 그 밖에 필리핀, 타이, 베트남인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결혼이민자는 2008년 기준 12만 2천 명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의 4.4%를 차지한다. 이는 별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2만 5천여 명에 비해 약 387% 증가한 수치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수도권지역과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대도시권에 절대적으로 많은 수의 결혼이민자가 거주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와 서울시에 각각 25.9%(3만 1,722명), 24.1%(2만 9,560명)가 거주하고 있다. 결혼이민자가 2천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7개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구로구·관악구·금천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로 모두 수도권 지역이다. 그러나 인구수 대비 결혼이민자의 상대적 비중을 살펴보면, 군지역 거주자의 비중이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비중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가 0.81%로 가장 높고, 서울 영등포구

그림 2\_ 외국인 유형별 공간분포(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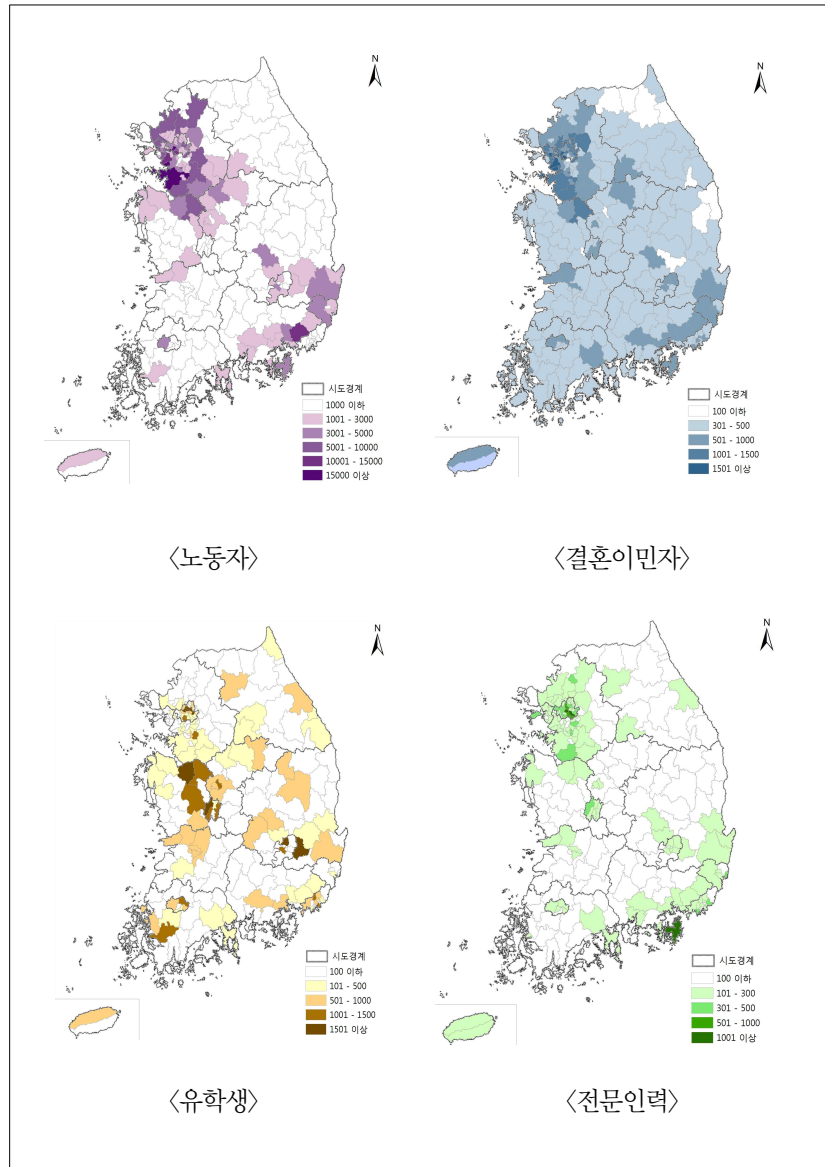


표 4\_ 외국인 유형별 밀집시군구

구분	밀집시군구
노동자 (만 명 이상)	서울 영등포구·구로구·금천구·관악구, 경기 시흥시·안산시 단원구·화성시, 경남 김해시
결혼이민자 (2천 명 이상)	서울 영등포구·구로구·관악구·금천구, 경기 안산시 단원구, 경기 시흥시, 인천 부평구
유학생 (1,500명 이상)	서울 동대문구·성북구·서대문구·종로구·광진구,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대구 북구, 경북 경산시
전문인력 (천 명 이상)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서초구·강남구, 경남 거제시

(0.64), 금천구(0.64), 전북 진안군(0.56), 서울 구로구(0.54), 전북 장수군(0.52), 임실군(0.52)의 순으로 나타난다. 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은 대체로 수도권 혹은 농촌지역에 속하는 군으로 크게 나뉘어 알 수 있다. 이는 농촌지역의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 여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이러한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인 유학생은 2008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의 8.7%(7만 4,328명)이며, 정부의 유학생 유치 및 체계적인 관리정책에 따라 그 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한국계 제외) 73%(5만 4,265명), 한국계 중국인 5.1%(3,792명), 몽골 4.0%(3,004명), 베트남 3.8%(2,840명), 일본 2.4%(1,777명), 미국 1.4%(1,075명)의 순으로 나타난다. 유학생의 공간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 북부의 대학가, 경산시, 아산시, 천안시, 영암군 등 중국 유학생을 집중 유치하고 있는 대학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어 나머지 유형과는 다른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외국인 유학생이 1,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총 9곳으로, 서울 동대문구·성북구·서대문구·종로구·광진구, 대전 유성구, 충남 아산시, 대구 북구, 경북 경산시가 이에 해당한다.

전문인력을 세분화하여 살펴보면, 무역경영, 기업투자, 특정활동 등 비즈니스 관련 인력이 40.1%(1만 9,268명)이고,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등의 전문직은 53.1%(2만 4,656명)을 차지하며, 예술홍행, 호텔유흥, 운동 등의 문화 예술 관련인은 8.7%(4,160명)을 차지한다. 이 중 회화지도자가 전체 전문인력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시(38.2%)와 경기도(22.2%) 지역에 거주하는 전문인력이 전체의 60.4%를 차지하며, 비즈니스 관련 인력인 경우 그 집중도가 더 높다. 외국인 전문인력이 천 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총 6개 지역이며, 이는

각각 서울시 종로구·중구·용산구·서초구·강남구와 경남 거제시로 전문업종의 비율이 높고 외투기업이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지역과 일치한다. 국적별로는 주로 미국, 중국, 캐나다, 영국 등으로 중국을 제외하면 영미권의 비중이 높다.

## 2. 외국인의 국적별 분포

이제 각 국적별로 공간적인 분포현황을 살펴보자(<그림 3> 참조). 먼저 한국계 중국인은 노동자의 비중이 높아(83.6%) 노동자의 공간분포와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즉 주로 수도권과 동남권의 산업단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단 한국계 중국인의 공간분포에 특징적인 것은 타 국적의 외국인과는 달리, 상당수의 한국계 중국인들이 서울시내에 집중거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국계 중국인이 여느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 구별된 공간분포를 나타내는 것은 이들이 언어소통이 가능한 장점을 활용하여 서울 도심 등지에서 각종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파악된다.

한국계 중국인이 5천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14개 지역으로 서울지역 9개 구(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광진구, 동작구, 동대문구, 송파구, 성동구)와 경기지역 5개 시구(안산시 상록구, 수원시 영통구, 성남시 중원구, 시흥시, 화성시)로 나타났다. 이 중 만 명 이상 거주 지역은 총 5개 지역으로 서울 영등포구(3만 3,866명), 구로구(2만 6,555명), 경기 안산시 상록구(1만 7,297명), 서울 금천구(1만 5,743명), 관악구(1만 4,796명)순이며, 안산시 상록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의 4개 지역은 서로 인접한 곳으로 한국계 중국인 밀집거주지로 알려져 있는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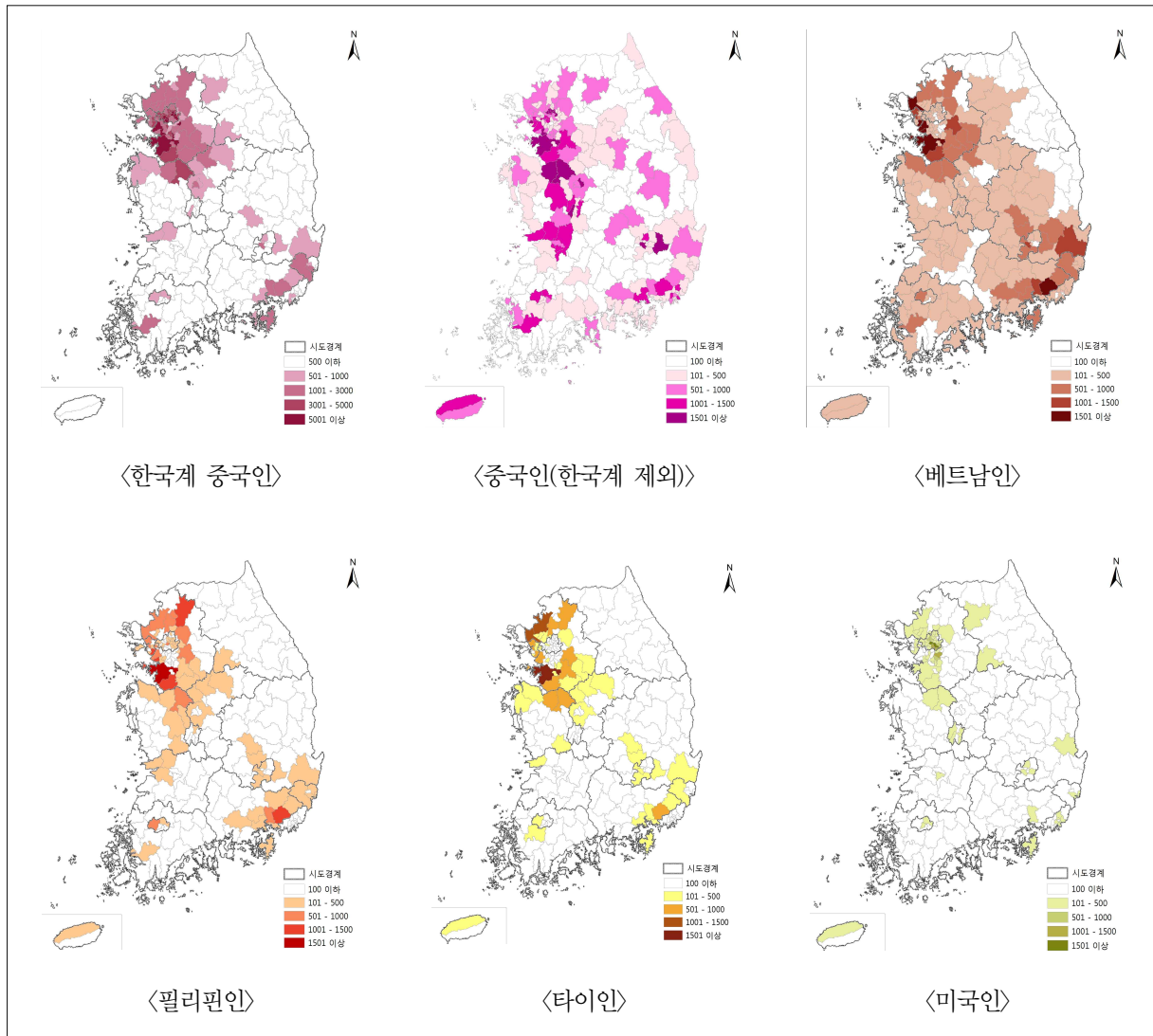
한편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을 살펴보면, 유학생의 비중이 큰 점이 반영되어 전국의 대

학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강북 대학가와 천안·아산지역 그리고 경북 경산시 등에 집중 거주한다. 천 명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총 41개 지역이며, 이 중 10개 지역은 서울시에, 나머지는 경기(5개 지역), 전북(4개 지역), 부산·인천·대전광역시와 충남(각 3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 2천 명 이상 거주지는 4개 지역으로 서울 동대문구(3,182명), 경기 안산시 상록구(2,907명), 경북 경산시(2,869명), 서울 종로구(2,018명)순으로 많은 중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베트남인, 필리핀인, 타이인의 경우는 그 분포 패턴이 유사하다. 이들은 수도권과 동남권의 외곽 지역에 주로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두 국적 외국인의 도심접근성이 한국계 중국인에 비해 떨어짐을 의미한다. 베트남인의 경우, 필리핀인과 타이인에 비하여 군지역에 거주하는 비중이 높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베트남인 중 결혼 이주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이들이 농촌 지역에 많이 거주하는 사정을 반영한다.

한편 미국의 경우, 타 국적 외국인들과는 상이한

그림 3\_ 국적별 외국인의 공간분포



주: 한국계 중국인과 중국인 자료는 2009년 6월 말 기준, 나머지 국적인은 2008년 말 자료 기준임.

분포패턴을 갖는다. 미국인은 서울의 강남권과 성남 분당 등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미국 국적 외국인이 500명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서울 7개 구(강남구, 용산구, 서초구, 송파구, 서대문구, 종로구, 성북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로 총 9개 지역이며, 이 중 강남구 거주 미국 국적인은 2,046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분포패턴은 미국인의 상당수가 전문인력의 유형에 속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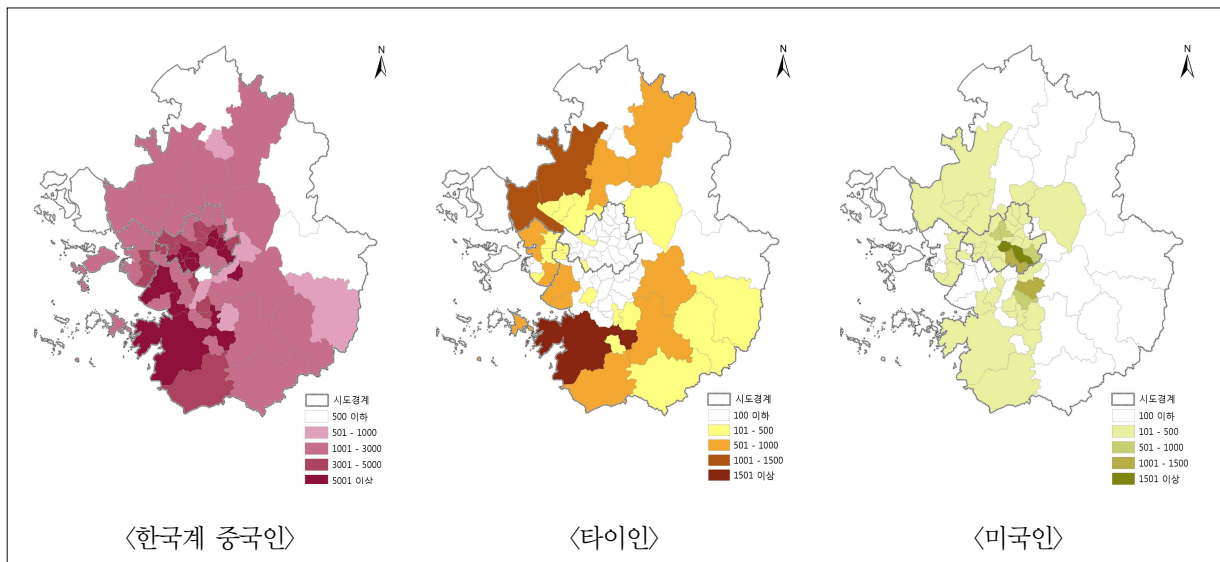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적별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대체로 해당 국적이 어떠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거주하는지에 의해 좌우된다. 즉 국적 자체보다는 체류자격이 공간분포에 결정적인 변수가 됨을 의미한다. 이는 체류자격이 곧 종사하는 직종 및 소득수준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하나의 예외적 현상은 한국계 중국인의 공간분포다. 한국계 중국인은 같은 노동자 집단이라 하더라도 타 국적의 노동자와 차별적인 공간분포를 보인다. 즉 타 국적 노동자들이 서울시 외곽의 산업단지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반면에 한국계 중

국인은 서울시 내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수가 분포하고 있다. 이는 한국계 중국인들이 한국어 구사능력 및 한국문화와의 친화성을 바탕으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계 중국인들은 상당수가 건설업, 요식업, 간병인 등의 저차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때문에 교통이 편리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집값이 저렴한 서울시의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광진구 등에 밀집하는 것이다.

한국계 중국인, 타이인, 미국인의 수도권 공간분포는 이들의 종사 직종이 공간분포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준다(〈그림 4〉 참조). 한국계 중국인과 타이인은 노동자의 비중이 83.6%와 89.9%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각각 방문취업제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했다는 점에서 각 유형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 서울시의 집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타이인은 주로 서울시 외곽의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에 비해 미국인은 서울의 강남과 경기도 분당지역에 집중도

그림 4\_ 주요 국적인의 수도권지역 분포 현황



주: 한국계 중국인과 타이인은 2009년 6월말 기준, 미국인은 2008년 말 자료 기준임.

가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공간분포 특징은 국적별로 종사 직종이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간분포가 차별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 IV. 결론 및 정책함의

이상에서 국내 등록외국인의 유형과 국적에 근거하여 공간분포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기로 한다.

첫째, 외국인의 증가추이, 유형별 분화현상, 공간분포 경향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점차 외국인의 정주화 현상이 분명해지고 있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는 외국인의 정주화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직까지 한국의 외국인 인력정책은 고급인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유치하되, 단순노동인력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그 수를 관리하고 정주화를 억제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그러나 일정 규모 이상의 외국인의 존재는 해당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기회를 확대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한 경제적 인프라 구축, 가족 결합, 내국인과의 결혼 증대 등 복잡한 요인을 거쳐 결과적으로 정주화를 초래한다. 이는 서구 여러 나라에서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따라서 한국도 외국인을 단순히 인력정책의 수준에서 소극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주민’으로 적극적으로 배려하고 통합하는 정책이 필요한 단계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중앙정부의 외국인정책이 그동안의 인력관리 중심에서 ‘사회통합’ 쪽으로 재편되기 시작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정책의지와는 달리 실제 현장에서 사회통합은 지난한 과제다. 따라서 지역수준에서 사회통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둘째,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수도권과 동남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하여 향후 수도권의 인구는 한국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외국인에 의해서 증가될 가능성이 크다. 전체 외국인의 66%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구 천 명당 외국인 수는 서울 25인, 경기 22.7명, 인천 18명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 지역이 세계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수도권에 외국인이 집중하는 현상은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정책적 대응을 요구한다. 우선 수도권의 외국인 집중거주도시, 즉 서울의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등과 경기도의 안산, 화성, 남양주, 부천 등의 도시들은 도시정책적으로 외국인의 거주편의와 사회통합을 위해 특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대부분 사회적 하위계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응시기를 놓칠 경우 외국인 밀집지역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빈곤과 범죄를 재생산하는 문제지역이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주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수도권의 노동시장이 인종에 의해 분화되는 노동시장 분절화 현상을 겪게 될 것이다. 이는 많은 해외의 도시-지역(global city-regions)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Scott, 2001; Sassen, 2006). 한국의 수도권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제조업이 중심기능이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인종에 따른 노동시장의 분화가 서구 대도시권에 비해 크지 않다는 점이 차이점으로 지적되었다(김원배 외, 2006; Hill and Kim, 2000). 그러나 향후 수도권 지역의 노동시장 분화가 진행된다면 고차서비스업 부분은 우수한 해외 인력이, 그리고 저차서비스업과 단순제조업 부문은 이주노동자가 점유하는 형태로 노동시장 분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그동안 한국도시가 장점으로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통합성이 그만큼

약화되고 있으며 서구의 대도시에서와 같이 사회적·공간적 갈등의 요소가 커짐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역시 적절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현재까지의 추세로 볼 때, 향후 민족별 주거지 분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까지 국적별로 세분화된 공동체를 형성할 것이라는 뚜렷한 증거는 찾기 어렵다. 그러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입국한 노동자들과 방문취업제(H-2)를 통해 입국한 한국계 중국인들의 공간분포 차이는 확연하다.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단순제조업에 종사하면서 대도시 외곽지역, 특히 산업단지 주변에 입지하고 있으나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는 제조업보다는 저차서비스업에 종사하면서 도심지역에 입지한다. 이러한 추세는 이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차이 -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문화와의 친화성 정도의 차이 - 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향후 외국인 노동자들의 민족별 주거지 분화는 ‘한국계 중국인 - 저차서비스 - 도심지역’과 ‘기타 외국인 노동자 - 단순제조업 - 대도시 외곽지역’으로 양분될 가능성이 높다.

넷째, 외국인 중에 한국계 중국인들은 모든 면에서 특별한 주목을 요하는 집단이다. 한국계 중국인은 전체 외국인의 절반을 상회하며 그 증가비율 역시 매우 높다. 또한 종사업종과 공간분포에 있어서 타 국적 외국인들과 차별화된다. 이들은 한국어 구사능력과 한국문화와의 친화성을 기반으로 타 외국인이 진출할 수 없는 서비스업에 많이 진출해 있다. 즉 요식업, 가사도우미, 간병인, 건설업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직종에 종사하면서 타 외국인 노동자들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공간분포에 있어서도 타 외국인 노동자들이 주로 산업단지 주변에 분포하고 있는 반면, 한국계 중국

인들은 대도시의 값싸고 교통이 편리한 주거지역에 집적하여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이미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많은 도시에 한국계 중국인 타운(소위 ‘조선족 타운’)이 형성되고 있어 침체되어 있던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마치 미국에서 멕시코계 이민자집단,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무슬림 이민자집단과 같이 한국의 한국계 중국인들은 유사한 위상을 점하면서 비중을 늘려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최근에 공개된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외국인의 유형별·국적별 공간분포 특성을 분석하고 그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다루고 있는 분석의 범위는 평면적인 분포특성을 벗어나지 못했으며, 이에 따라 정책함의 역시 공간구조 측면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다. 이는 무엇보다도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초보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향후 외국인의 국적별 공동체 형성, 밀집지역 형성 및 경제인프라 구축, 유형별 외국인의 특성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축적될 때 외국인의 공간분포는 보다 풍부한 사회적·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강경조. 2002. “서울시 외국인 거주에 관한 공간분석”. 건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원배 외. 2006. 동북아 대도시권의 동태적 경쟁력 비교연구. 서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김은미. 2007. “서울 내 외국인 문화 활성화 방안”. 서울정책포커스 제26호. 서울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pp1-13.
- 김이선 외. 2007.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구축(1): 한국사회의 수용 현실과 정책과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혜순. 2008. “결혼이주여성과 다문화사회 실험: 최근 다문화담론의 사회학”. 한국사회학 제42권 제2호. 서울 : 한국사회학. pp36-71.
- 김혜순 외. 2007. 한국적 다문화주의의 이론화. 서울 : 한국사회학회.
- 설동훈. 1999. 외국인노동자와 한국사회.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 안영진·최병두. 2008. “우리나라 외국인 유학생의 이주 현황과 특성: 이론적 논의와 실태분석”. 한국경제지리학회지 제11권 제3호. 강원 : 한국경제지리학회. pp476-491.
- 오경석. 2007.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 현실과 쟁점. 서울 : 한울 아카데미.
- 외국인정책위원회. 2008. 제1차 외국인정책기본계획.
- 이갑호. 2007. 해외현장기획보고: 선진국 사례로 본 국내의 외국인 집거지 관리·활용방안. 서울 : 국가정보원.
- 이정환·이성용. 2007. “외국인 노동자의 이주특성과 연구동향”. 한국인구학 제30권 제2호. 대전 : 한국인구학회. pp147-168.
- 장미혜 외. 2008.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패러다임 구축(II): 다문화 역량증진을 위한 정책II 사회적 실천현황과 발전방향(총괄보고서).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전병근. 2005. “수십년 굶은 무슬림의 분노는 ‘유럽의 시한폭탄’”. 주간조선 제1880호. 서울 : 조선일보사. [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17/2005111777014.html](http://weekly.chosun.com/site/data/html_dir/2005/11/17/2005111777014.html).
- 전형권. 2008. “국제이주에 대한 이론적 재검토: 디아스포라 현상의 통합모형 접근”. 한국동북아논총 49집. 대전 : 한국동북아경제학회. pp259-284.
- 정연주. 2001. “외국인 노동자 취업의 공간적 전개과정: 경인지역을 사례로”. 한국도시지리학회지 제4권 제1호. 서울 : 한국도시지리학회. pp27-42.
- 최종렬 외. 2008.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패러다임과 국가별 유형비교. 서울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행정안전부. 2008.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 황정미. 2009. “‘이주의 여성화’ 현상과 한국 내 결혼이주에 대한 이론적 고찰”. 페미니즘 연구 제9월 제2호. 서울 : 한국여성연구소. pp1-37.
- Castles and Miller. 2009. *The Age of Migration: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 The Guildford Press.
- Elliott, Michael. 2008. “A Tale of Three Cities”. *TIME*. 1월 17일자.
- Faist, Thomas. 2000. *The Volume and Dynamic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Transnational Social Spaces*.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Granovetter, Mark. 1995. *Getting a Job: A Study of Contacts and Careers, Second Edition*.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ill, Richard C. and Kim, June Woo. 2000. “Global Cities and Developmental States: New York, Tokyo and Seoul”. *Urban Studies* vol.37, no.12. UK : SAGE Publication. pp2167-2195.
- Keeley, Brian. 2009. *International Migration: The Human Face of Globalization*. Paris : OECD.
- Lin, Jan. 2005. “Globalization and the Revalorizing of Ethnic Places in Immigration Gateway Cities”. in Jan Lin and Christopher Mele. *The Urban Sociology Reader*. New York : Routledge.
- Massey, Douglass D. et al. 1993. “Theories of International Migration: A Review and Appraisal”.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vol.19, no.3. USA : Willey-Blackwell. pp431-466.
- Portes, Alejandro. 1995. “Economic Sociology and the Sociology of Immigration: A Conceptual Overview”. in Alejandro Portes. 1993. *The Economic Sociology of Immigration: Essays on Networks, Ethnicity and Entrepreneurship*.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Sassen, Saskia. 2006. *Cities in a World Economy*. Calif : Pine Forge Press.
- Scott, A. 2001. *Global City-Regions: Trends, Theory, Policy*.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Zukin, S. 1988. *Loft Living: Culture and Capital in the Urban Change*. London : Radius.

- 논문 접수일: 2010. 1.11
- 심사 시작일: 2010. 1.20
- 심사 완료일: 2010. 2. 3

---

**ABSTRACT**


---

**Spatial Distribution of Foreign Population and Policy Implications in South Korea**

Keywords: Foreigners, Spatial Distribution, Foreign Workers, Foreign Brides, International Students, Foreign Professionals

The foreign population in South Korea has dramatically increased in recent years, sending a awakening message to government's policy circles that the nation is moving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in a rapid pace. This unprecedented demographic trend is expected to put a big challenge to Korea, which has long been regarded as a ethnically homogeneous nation. However, the spatial distribution have been rarely studied largely due to the lack of data available. Based on the data of registered foreigners released in 2008 and 2009 from the Ministry of Justice, this paper explores the spatial pattern of foreign population distribution by nationalities and visa types(status of residence) and its policy implication. Major findings are followings. First, the robust increase in every types of foreigners indicates that foreigners in South Korea should be considered as permanent residents rather than temporary in urban policies. Second, the Capital Region has been a main area to absorb foreign population, accommodating 66% of foreign population in South Korea. It means the area is transforming its socio-spatial structure into one of global city-region. Third, the spatial segregation by nationalities will be observed in the near future. Noted is the different spatial pattern between Korean Chinese and the foreign workers of other nationalities. Lastly, the policy circle should keep eyes on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Korean Chinese, since they will be a key ethnic minority in South Korea, like Muslim in European countries and Mexicans in US.

**외국인 주거지의 공간분포 특성과 정책함의**

주제어: 외국인, 공간분포,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전문인력

최근 한국사회는 체재 외국인의 증가로 인해 급속히 다문화사회로 이행하고 있다. 외국인의 공간분포에 대한 연구와 문제점의 파악은 외국인 관련 정책의 가장 기초적인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련 자료의 불비와 사회적 관심 부재로 인해 적절히 다루어지지 못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공간분포를 체류자격별로, 국적별로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국토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의 증가추이, 유형별 분화, 공간분포 경향을 종합해 볼 때 한국사회에서 외국인의 정주화 경향이 분명해지고 있다. 둘째, 외국인은 수도권과 동남권에 주로 분포하며, 특히 수도권에 전체 외국인의 66%가 집중되고 있어 향후 수도권 지역구조 변화에 외국인의 존재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민족별 주거지 분화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한국계 중국인과 그 밖의 외국인 노동자는 주거지 패턴의 차이가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향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한국계 중국인은 외국인 중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며, 도심지역(서울시)에 밀집거주하는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정책대응이 필요하다.

[부록]

부표 1 \_외국인의 체류자격별 유형구분

구분	유학생	전문인력	결혼이민자 <sup>1)</sup>	노동자	기타
1990년	유학	취재, 기술제공, 상용, 투자, 교육연구, 흥행	-	취업, 연수 <sup>2)</sup>	종교·복지, 동거, 거주, 동반, 기타
1995년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취재, 상사주재, 기업 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직업, 예술 흥행, 특정활동	-	산업연수, 관광취업	종교, 방문동거, 거주, 동반, 기타
2000년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취재, 상사주재, 기업 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직업, 예술 흥행, 특정직업, 해외 투자	-	연수직업, 관광취업, 중기협 추천, 수산업 추천, 각 부처 추천, 건설협 추천, 해운협 추천	종교, 방문동거, 동포연장, 동포변경, 거주, 동반, 기타
2005년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국어연수, 기타연수	취재, 상사주재, 기업 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 지도, 전문직업, 예술 흥행, 예술연예, 호텔 유흥, 운동, 특정직업, 자특활동	배우자, 국민 배우자	산업연수, 해외투자, 중기협 추천, 수산업 추천, 각 부처 추천, 건설협 추천, 농협 추천, 연수취업, 비전문 취업, 취업관리, 관광 취업	종교, 방문동거, 동포연장, 동포변경, 거주, 난민, 영주배우자, 기타 장기, 동반, 재외동포, 영주, 기타
2008년	문화예술, 유학, 일반연수, 국어연수, 기타연수	취재, 주재, 기업투자, 무역경영, 교수, 회화 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예술연예, 호텔유흥, 운동, 특정활동	배우자, 국민 배우자	산업연수, 해외투자, 중기협, 수산업, 각 부처, 건설협, 농협, 내향선원, 어선원, 연수취업, 비전문취업, 내향선원, 취업관리, 방문취업	일연아동, 종교, 방문동거, 동포연장, 동포변경, 거주, 난민, 영배우자, 고액 투자, 기타장기, 동반, 영주, 기타

주: 1) 결혼이민자의 경우 2001년부터 배우자(F-1-3), 2002년부터 국민배우자(F-2-1)를 별도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집계를 시작함.

2) 1990년 연수(9-13) 타입의 경우 노동자유형으로 분류함(산업연수와 일반연수가 세분화되지 않음).

자료: 법무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체류자격별 정의를 바탕으로 유형화함.